

김재진



한번쯤  
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 
그때 그 용서할 수 없던 일들  
용서할 수 있으리.

자존심만 내세우다 돌아서고 말던  
미숙한 첫사랑도 이해할 수 있으리.

모란이 지고 나면 장미가 피듯  
삶에는 저마다 제 철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 
찬물처럼 들이키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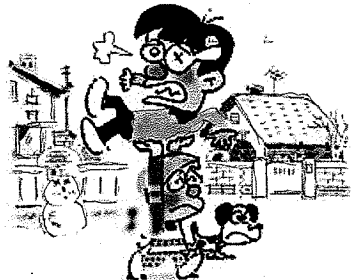
한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 
나로 인해 상처받은 누군가를 향해  
미안하단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으리.

기쁨뒤엔 슬픔이  
슬픔 뒤엔 또 기쁨이 기다리는 순환의 원리를  
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 
너에게 말해 주리.

.....  
.....  
한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 
망설이기만 하다 포기하고 만  
금지된 길들 찾아가보리.

사랑에는 결코  
금지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 
모르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리.

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 
그때 내 마음 흔들어 놓던  
너의 그 눈빛이 일러주는 길을 따라  
돈에도 이름에도  
그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으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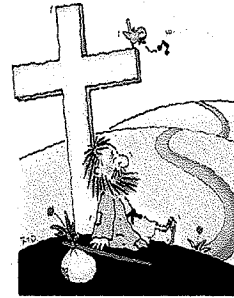


◀그땐 그랬저 ▶ 길창덕의 만화 “꺼봉이”  
“중년을 지나면서 어릴 적 살았던 동네를 찾습니다. 넓어 보이던 골목길이 왜 이리도 좁은지. 나무에서 콘크리트로 바뀐 것 만 빼고는 전봇대 하나도 정겨워 보입니다. 바로 그때, 늘어난 런닝을 입고 머리엔 땀통을 단 콧물 흘리는 아이가 툭 집니다. 보니 친구 ‘꺼봉이’입니다. 반가움에 안고 보니 나는 이미 그때의 내가 아닙니다. “꺼봉이”,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어릴적 친구입니다.....”

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<b>갈보리교회</b> (마7:8)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8권 44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6년11월 5일
☎ 369- 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하나님의 눈물

shleeyu



철 들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, 죄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 
죄의 속죄양으로 보내 주심을 감사했다.  
그러곤 여전히 힘들면 도와 달라고 기도 했다.

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고통스럽게 죽이면  
서 가슴 아파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다.

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를 들 때 그 때리는  
가슴은 더 찢어지고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. 이 세상의  
그 어떤 아버지가 타인의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 놓  
겠는가?

설령 나쁜 아들이라해도, 그 아들의 생명을 내 놓지 않을 것이다.

그리고 그 심정이 이해가 됐다.  
근데 왜 한 번도 우릴 위해 하나 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는 하나님을 아버  
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을까.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데....

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 
'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 
터지고...(마태복음 27:51),  
'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(마가복음 15:38),  
'...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  
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' (누가 복음 23:44-45)

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일런지도 모르겠다.  
지금은 모르지만,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물어 보리라. 그리고 다시 한  
번 속죄하리라, 잘못 살아오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....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  
우리가 남을 위할 때  
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 
그 무엇으로도  
막을 수 없다.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  
혼인의 일에  
재물을 논함은  
오랑캐의 도이다

# 주 일 예 배

(\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 Glory	Calvary	다 같 이
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 도 자
*찬 송 Hymn	24장	다 같 이
*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	38(이사야 42)	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 도 자
찬 송 Hymn	509장	다 같 이
기 도 Pray		이근평 안수집사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마태복음 4:1-4	인 도 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십자가 성가대
설 교 Sermon	첫 번째 시험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543장	다 같 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같 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“ 남편 생일에 선물 대신 성전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”  
-성전건축 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봉투에서-

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:\$1,565 + ₩30,000      총액:\$148,668

### ◆11월 예배위원◆

일자	기도	차 량	안 내
29	양경배	이근평	본당:윤주야
5	이근평	이재영	임혜자
12	이재영	김교섭	현관:박일영
19	정관영	박일영	이광희
26	조용건	이광희	새교우:이근평, 장유진

### ◆11월의 교회력◆

주 일	예배와 모임
5	월초새벽기도회(1) 여선교회(5).구역예배(10)
12	믿음의 어머니기도회(14)
19	추수감사주일
26	이삭줍기주일    수요수도원(29)

『교 회 생 활』 2006년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	『교 회 등 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
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12:30분    수요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 금 5:55    청년부: 토 오후 5시

1. 교우소식  
<이사> 김용석, 최신덕 집사. 1/30 Matai Rd. Greenlane ☎ 522-9301
2. 정가구역예배주간입니다. <금요일 저녁 7:30분>  
\*우리들의 모임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따뜻한 위로로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.
3. 성전건축을 위한 4,5여선교회 김밥판매  
\*성전을 위한 어머니들의 믿음이 가지런히 놓인 재료처럼 단정하고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. 예배 후 친교시간에 판매합니다(김밥 1줄=\$4)
4. 봄맞이 대심방  
<일자> 11월 첫주간부터 <방법> 구역별 <구역장 모임>: 예배 후 유아실  
<심방시간> (1) 낮(월, 화, 목): 오전 10시-오후2시  
(2) 저녁(금, 토): 오후 6시- 10시
5. “성탄축하의 밤” <12월 24일 Pump House>  
\*벌써 2006년의 성탄절을 생각합니다. 남여선교회, 주일학교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주님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6. 성전건축을 위해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.  
\*성전 건물이 사람을 위해,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그런 우리 교회당이 되기를 기도하며 꿈을 꾸니다.
7. 수요예배 <수요일 저녁 7:30분>  
\*말씀 한 절 한 절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니다.

### ◀착한 시인들▶ 누룽지      정상현

배고픈 날  
누룽지 한 조각 먹어보아라.  
밥 짓다 태웠다고  
푸념할 일이 아님을  
꼭꼭 오래 씹어 본 사람은  
그 맛을 알리라.  
인생도 씹을수록 맛이 나는 누룽지처럼  
더 타고 속이 타야  
멋도 알고 맛도 알까?

